

인터넷으로 교육·에너지분야 큰 변화 올 것

“인터넷으로 인해 교육과 에너지·헬스케어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비디오·모바일·사물인터넷 등 폭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지능형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빠른 통신망이 인터넷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이서넷(Ethernet)을 발명한 밥 멧커프(사진)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학 교수는 이서넷 발명 40주년인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있는 컴퓨터 역사 박물관에서 한국 언론과는 처음으로 기자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멧커프 교수는 “한국이 미국보다 인터넷 망을 더 잘 구축해 놓고 있어 사심이 난다”며 “인터넷을 통해 큰 변화가 밀려오고 있고, 잘 구축된 네트워크는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 큰

이서넷 발명 밥 멧커프 교수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 위해선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서둘러야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교육과 에너지·헬스케어 분야가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 자동차 등이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변역 가운데 대학의 종말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3~5년 내에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온라인 공개강좌)’으로 인해 기존 교육 시스템이 흔들릴 것으로 내다봤다. 멧커프 교수는 “교육은 점차 평생 학습으로 바뀌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나이와 국적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다”며 “방글라데시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도 MIT 신입생과 함께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버드·MIT 등이 일부 수업을 개방한 데 이어 조지아공대는 온라인 수강과 6분도록 했다. 이처럼 글로벌 명문대학들이 속속 MOOC를 통해 학위를 제공하면 우

리나라 대학과 대학원은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인터넷이 세상의 중심으로 파고 들면서 데이터가 폭증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비한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멧커프 교수는 “비디오,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트래픽이 만들어져 유통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멧커프 교수는 1973년 이서넷을 발명했다. 이서넷은 컴퓨터기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통신)의 근간으로 LAN(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 와이파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마운틴 뷰(미국)-우승호기자
demda@sed.co.kr